

도·시군, 보건의료정책 발굴 머리 맞대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아이디어 발굴 및 논의 의료계 집단행동 현실화 대비 비상진료대책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비 등 논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 지역보건의료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 보건관련 3개 과장(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과 시·군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발굴과 확대 등 새로운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 운영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추어 보다 나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비대면진료 확대, 파견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올해 추진되는 보건의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3개분야의 사업계획

에 대해 안내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힘을 모았다.

시·군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신규 공공보건지소 우선 배치(장수, 부안)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장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군산) 등을 논의하며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전북 지역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진료사업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개선(소독기준 폐지), 지하수 사용업체 노로바이러스 선별검사 시행 등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비 등 논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 지역보건의료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읍·고창 총선 후보자들, 국회의원 임기 중 국도비 확보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예비후보인 유성열 전 의원과 윤준병 현 의원이 시·국회의원 임기 중 국도비 확보 현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두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준병 예비후보가 자신의 국도비 확보 실적에 정부부처가 배분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했다고 밝히면서 유성열 예비후보가 윤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윤준병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에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태세다.

유성열 예비후보는 "지방이양사업비로 명칭이 바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 균형발전 목적으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라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배분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이 예산은 국회의원이 필수적인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인 만큼 윤 예비후보 본인이 이 예산을 포함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열 예비후보 "국회의원 국가예산에 균특예산 소가 웃을 일" 윤준병 의원실 "균특예산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 엄정 대처"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나 공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자치단체의 결산과정에서 예산의 명목이 시비로 귀속된다"며 "이 때문에 이 특별회계 예산을 국회의원이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라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 및 귀속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비가 아니듯 지방이양사업비도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윤준병 예비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4년간의 국도비 예산 산출방식에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유성열 예비후보에게만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한 국도비 예산의 산출방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유성열 예비후보는 자신이 밝힌 국도비 예산은 정읍시와 고창군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정리, 분석한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 20일 정읍시의회 Y 경제산업위원회가 윤준병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국도비 확보 현황은 거짓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자 윤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양사업비(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공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됐다고 모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은 21일, 유성열 예비후보가 국도비 확보 실적에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된 점을 비판한 것과 관련 "예산의 구조를 1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유성열 예비후보의 끝 모르는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가예산 및 국비 확보로 의정성과를 평가받아야 함에도 도비까지 끌어와 자신의 성과마냥 예비후보자 홍보물에까지 적시한 것은 바로 유성열 예비후보"라며 "이에 그 산출근거를 지역주민에게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유 예비후보는 묵묵부답

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에 국·도비 내역을 제공받은 결과, 유 예비후보가 적시한 국·도비 증가액마저도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증명되었다"며 "정읍시청에서 제출받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인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 삼는 유성열 예비후보는 예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청에 확인한 결과, 정읍시가 관리하는 국비는 '국고보조', '균특회계(지방이양사업포함)', '기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윤준병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는 정읍시가 관리하는 국·도비 내역으로서 그 자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정읍시로부터 받았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유성열 예비후보를 변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Y 정읍시의원이 공개한 예산내역에도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읍시청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자신이 적시한 국·도비 내역의 세부항목도 모르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는 유성열 예비후보는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별취재반

자치도, 노동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노사단체·노동권익센터 등 무료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3개 노사단체(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와 1개 민간위탁단체(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이주·외국

노동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련 사항을 상담·지원한다.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을 주로 상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접근이 쉽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063-256-5005)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더불어 군산, 정읍, 익산, 완주군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자 법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063-254-7670)는 전화상담·소송지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노동법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악취민원 협력 대응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질적인 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도·시군 관련 부서의 간담회

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성과 및 개선사례를 홍보하고 올해 운영방안을 협의했으며, 악

취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사례 등 민원대응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악취강도 인식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악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공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1일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혁신지구'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직업교육혁신지구 전북지구 교육부장관 기관표창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공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1일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2023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농생명·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업 및 후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유관기관 등과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 후,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채용연계형교육과정, 유관기관 심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2026년 2월까지 직업교육협력체계 강화, 지역인재 성장 경로 마련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전략사업인 스마트농생명,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인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 대학,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형 인지훈련 '기억짜꿍' 시범운영

효과성 분석 검증 후 확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3월부터 개발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짜꿍'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짜꿍'은 도민의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기억짜꿍1·2'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2015년 '뇌운동프로그램 인지훈련매뉴얼', 2017년 '두뇌넉넉', 2021년 '기억짜꿍1·2', 2022년 '복합

중재 프로그램 기억튼튼' 등 인지중재 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오는 23일 도내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관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억짜꿍'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한 시범운영은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치매안심센터와 복지관 12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인지기능과 우울감에 대한 효과 연구를 병행해 결과를 토대로 도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9일간 의정활동 돌입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2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최재기 의원은 동학농민군 총관리 김개남 장군의 유적지 보존을 촉구했으며, 서항경 의원은 정읍시 다문화가

정 아동·청소년 교육의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삼임위 원회별로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안건 16건 심의·의결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1일 제 34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일간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두레 의원은 '경로당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촉구'라는 주제로,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9대 출범 3년차를 맞아 부안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